

# 21년 베일 벗는 모태펀드 성적표... “출자 넘어 성장 연결”

## KVIC, 내달 수익률 첫 공시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KVIC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KVIC

‘1000만이 훌쩍 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투자한 모태펀드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2005년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출발한 한국벤처투자(KVIC)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투자 수익률을 5월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국민 혈세로 창업·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의 수익률이 21년만에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익률 공시는 5월에 예정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회의에 맞춰서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만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분야별로 공개할지 등은 중소벤처기업

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는 13개 출자 중앙부처와 민간위원 등 약 20명 정도로 구성됐다. 기존 10개 출자부처에서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리된 우주청, 국

민안전계정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가됐다.

이대희대표는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 모태펀드가 그동안 출자에 집중하며 인프라를 깔아놨다면 앞으로는 출자를 넘어 기업의 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에 충실한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는)자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장해 지역의 벤처 생태계를 살리고, 모태펀드의 글로벌 위상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벤처시장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연금제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 모펀드 4개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에는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5개를 추진해 비수도권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대표는 “지역투자의 경우 과연 투자할 기업이 있느냐, 투자가 먼저 이뤄

져야하느냐 논쟁이 있다. 투자에는 모태펀드가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BNK금융지주와 MOU를 했고 다른 지역의 금융기관과도 추가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진출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글로벌펀드는 84개까지 늘어났다.

재외동포가 중심이 된 제주스타트업펀드가 조성됐고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가 문을 열면서 KVIC등 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한국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도 본격 시작했다.

이대표는 “KVIC가 글로벌펀드에 출자를 시작한 것이 2013년이다. 10년이 지나는 사이 해외에선 모태펀드가 ‘소버린(Sovereign)펀드’ 역할을 하며 벤처캐피탈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인지도가 갖게 됐다. 협력을 원하는 해외 수요도 많다. 해외 역시 인프라를 깔아 놓은 만큼 진출을 돕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창업진흥원

### 이노웨이브 수요처 모집

대·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 지원

창업진흥원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인 ‘이노웨이브(Inno-Wave)’ 수요기업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28일 창진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노웨이브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수요기업과 초격차 창업기업 간 공동 실증 및 사업화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로봇, 이동기술, 친환경·에너지 같이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이 협업 과정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연합(원팀 컨소시엄)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올해는 해당 방식을 유지하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협업자금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김승호 기자

# “선정 안 되는 게 낫다”... 규제샌드박스에 갇힌 청년창업

## 중소 옴부즈만·중진공

광주 청창사서 규제·애로 간담회  
실증특례 후 법령 정비 지연 호소  
“혁신 인큐베이터 역할 못 해”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샌드박스도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지 않는게 사업에 유리하다”는 불만 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규제·애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옴부즈만과 중진공은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이 28일 광주시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창업가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

담회를 함께 열고 있다.

간담회에서 AI 기반 중개 플랫폼 운영사 A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후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데스밸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력이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

지 않는 편이 유리한 상황도 생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증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사업을 멈추지 않도록 법령 완비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대와는 다르게 승인된 실증 특례 사업의 다수가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책임 회피, 부처 간 이견, 입법 미비, 이해 관계 조율 실패로 인해 제도화 전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거나 법령 정비의 연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샌드박스가 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초기에 직면하는 행정적 장벽에 대한 애로를 듣고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승호 기자



## 귀뚜라미

### 저장식 전기온수기 선택

좁은 공간 설치·동시 온수 사용 가능

귀뚜라미가 저장식 스테인리스 전기온수기 ‘WS시리즈’ (사진)를 새로 출시했다. 28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저장식 전기온수기 WS시리즈는 ▲15리터(벽걸이형·언더싱크형) ▲30리터(벽걸이형·언더싱크형) ▲50리터(가로형·세로형) 등 다양한 용량으로 구성돼 장소와 용도에 따라 알맞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50리터 모델은 기존 대비 제품 길이를 약 19% 줄여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재질의 온수탱크를 적용했으며 고온 부식에 강한 니켈 합금인 인코로이(Incoloy) 히터를 적용해 장기간 깨끗한 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온수탱크 외부는 단열 효과가 뛰어난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으로 감싸 열손실을 최소화했다.

저장식 전기온수기 WS시리즈는 한 대로 싱크대, 세면대, 샤워실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온수탱크에 적정량의 온수가 내장돼 있고, 사용 중에도 재충열을 통해 온수를 지속 보충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소 10곳 중 8곳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향”

중진공, 취업연계 지원 수요등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 정보나 인재 탐색 등에서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477개사와 외국인 유학생(D-2비자) 및 외국인 구직자(D-10비자) 676명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8일 내놨다.

D-2비자’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 등에서 유학하기 위해 부여받는 체류자

격, ‘D-10비자’는 국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구직 체류자격을 각각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8.4%는 향후 외국인 유학생·구직자를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63.7%는 이들이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채용정보 접근 및 적합 인재 탐색의 어려움’(75.9%)이 가장 큰 애로로 조사됐다. ‘공공 주도의 적극적 매칭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3.7%에 이르렀다. 응답기업은 수도권 52.6%, 비수도권 47.4%로 분포돼 있으며, 제조업 비중이 74.8%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 여성창업경진대회 39대1 역대 최고 경쟁률

44팀 선발에 1712팀 접수

27년 역사의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역대 최고 경쟁률인 39대1을 기록하며 국내 최고의 여성 창업 등용문임을 입증했다. 28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기중)에 따르면 ‘2026년 제27회 여성창업경진대회’ 모집 결과 44팀 선발에 총 1712팀이 접수했다. 전년 대비 66% 늘었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국내 유일의 여성창업자 대상 경진대회로, ‘도전! K-스타트업 2024’ 창업리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이오브릭스’를 비롯해 웹테크 선두주자 ‘이너시아’ 같은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탄생시키며

해마다 높은 관심과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 가장 주목할 점은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기술·혁신 분야에선 빅데이터·AI(454팀)이 단일 항목 중 가장 많은 참여를 기록했고, 바이오·헬스케어(141팀)와 웹테크(108팀) 등 고난도 기술 창업에도 관심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라이프·소비재 분야에서도 K-푸드(231팀), 여성·가족 케어(226팀), K-뷰티(130팀) 등에 아이디어가 쏟아지며 ‘여성 특화’ 비즈니스 모델의 저력을 확인시켰다. /김승호 기자